

‘창립 40주년’ 전건협 전북, 새 도약 다짐

기념식 개최... 회원사 700여명 · 지역 주요 인사 참석, 전문건설 산업 발전 다짐

전북 건설산업의 중심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사 3층 공영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임·직원과 회원사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유희태 완주군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임근홍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시공의 주체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협회 창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며 “건설



전북 건설산업의 중심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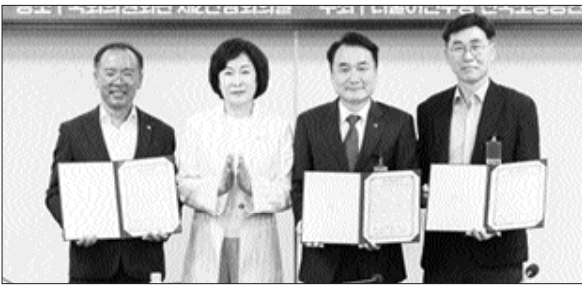
산업 발전과 도내 기반 조성을 위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전문건설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문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와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전문건설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 출신 가수와 남성 중창단의 공연으로 행사장을 축제 분위기로 가득 채우며, 참석자 모두가 함께 40주년을 축하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85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6만여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여성선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13대 임근홍 회장에 이르렀으며, 회원사의 권익 보호, 건설산업 공정성 강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3,300여 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서민들의 따뜻한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숨결을 불어넣는 전통시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전통시장 안전 한층 더 강화된다

전기안전공사 · 상인연합회 · 소진공, 3자 업무협약

서민들의 따뜻한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숨결을 불어넣는 전통시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오세희 국회의원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맞잡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통시장 점포 전기설비 시 사전 컨설팅 제공 △시장 상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전기안전교육 △화재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보급 등 현장 중심의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합동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상인들의 매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국민이 믿고 찾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AI·혁신 추진단’ 공식 출범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공단이 한발 앞선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행보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이사가 단장을 맡고 디지털혁신본부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며, △연금·복지 △기금운용 △기관운영 △시스템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공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AI 최고책임자(CAIO)를 지정하는 등 AI 대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단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성과와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AI를 활용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화의 물꼬를 텄다. △AI 수어 영상 안내 서비스, △AI 사원을 통한 상담·홍보, △AI 규정 비서 도입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학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보건복지부 주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 9월 15일 열린 제1차 AI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단의 데이터와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AI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KAIST, 산학협력 강화 손잡다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 통해 지역 기술사업화 생태계 본격 가동

전북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 이진재)이 손을 맞잡고 산학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18일 전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 수요 충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와 KAIST ILP 프로그램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에는 이진재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접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기술 교류 확대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같은 날 열린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 행사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등

23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무려 370여 건의 기술을 출품했다. 도내 기업들과의 1대1 상담과 매칭을 통해 활발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계가 이뤄지며 현장은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기술이전 상담뿐만 아니라 △우수기술 세미나 △R 컨설팅 △맞춤형 기술 상담회 등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돼 기업들의 사업화 애로 해소와 성장 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과 네트워킹 행사는 도내 산학연 간 협력 생태계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 ‘디지털 혁신’ 두 날개 달다

중기부, 제도 개선 회의 열고 건전한 유통질서 · 플랫폼 전환 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표 정책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류상품권 구매·환전 한도 축소,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유통 현장점검 강화 등 주요 조치의 성과와 시장 반응을 공유한 뒤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인 간 상품권 거래 금지 △재판매 금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근거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 검토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화습형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 △테마별 가맹점 안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2025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 개최

도 · 전북테크노파크, 373건 우수기술 전시 · 맞춤형 상담

전북의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전후방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 전주 덕메이호텔에서 ‘2025 전북 테크비즈 네트워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이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대학·연구소 등 23개 기술공급기관이 참여해 총 373건의 우수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기업의 기술 수요 27건을 사전에 발굴해 △1:1 맞춤형 기술상담 △R 컨설팅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상담 등을 진행,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이어갔다.

이율리 ‘차세대 메디푸드 패러다임’, ‘플라즈마 기술 응용’, ‘도라지·천마

유용성분 증진 연구’ 등 다채로운 세미나가 열려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미국 상호관계 현황과 산업기술 보호를 주제로 한 설명회도 함께 열려 기업들이 최신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네트워킹은 단순한 기술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협력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전북도가 자체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형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 시스템’도 이날 말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어, 향후 기술이전·공동연구·전문가 매칭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도내 기업 성장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산·학·연이 어우러진 실질적 교류의 장이자, 기업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화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